

# 서비스 무역 및 수출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연구

성 한 경\*

## 목 차

요약	5. 한국의 서비스무역 현황분석
1. 서론	6. 한국의 대응전략
2. 서비스무역의 형태와 사례	7. 토의 및 결론
3. 서비스의 역할과 중요성	참고문헌
4. 서비스 무역 자유화	Abstract

## 요약

본 논문은 서비스 무역의 유형과 중요성에 대해 논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던 서비스 무역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GATS)과 함께 그 형태가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역 자료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서비스는 제조업 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현재 정체된 상품교역을 넘어서는 교역 증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한 효과는 OECD에서 구축한 서비스교역제한지수를 활용한 연구들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한국의 서비스 교역 비중은 상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고,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 서비스 개방을 추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개도국과 선진국을 매개하는 Korea Standard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표제어: 서비스무역, 무역자유화, 서비스교역제한지수, 대응전략, 한국표준*

접수일(2017년 4월 30일), 수정일(1차: 2017년 5월 24일), 게재확정일 (2017년 6월 2일)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hsung@uos.ac.kr

##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은 1980년대 이래 크게 증가해 왔다. 그러나 서비스무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는 정리되지 않고 있었고, 또한 다양한 정부의 규제가 서비스 활동을 심각하게 규제하고 있었다. 이에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만들어지면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GATS)가 제정되었다. GATS는 그러한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무역장벽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무역 장벽들은 서비스의 다양성과 국가 수준과 다른 우선순위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 무역 및 수출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적합한 한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전략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비스 무역의 형태와 사례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고 서비스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러한 서비스의 자유화에 대한 국제기구의 노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한다. 관련하여 한국의 서비스 무역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2. 서비스 무역의 형태와 사례

GATS에서는 서비스 무역을 네가지 형태로 구별하고 있다. Mode 1은 국경간공급을 의미하고, Mode 2는 해외소비를, Mode 3는 상업적 주재를, Mode 4는 자연인의 이동을 의미한다(Pindyuk and Worz, 2008). 각 Mode의 차이점은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수요자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서비스 공급의 유형의 차이점에 있다. Mode 1은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수요자가 자국에 머무르면서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요하는 방식이 Mode 1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Mode 2는 서비스 공급자는 자국에 머무르지만, 서비스 수요자가 서비스 공급자를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로 해외소비라고 부른다. 대표적으로 관광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가 Mode 2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Mode 3와 Mode 4는 Mode 2와 달리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수요자를 찾아가는 형태이다. Mode 3는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수요자가 있는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의 상업적 주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흔히 관찰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같은 형태로 진출하게 된다. 반면에 Mode 4는 자연인 즉 사람이 직접 해당 국가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된다. Mode 3와 같은 형태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흔히 관찰되고, 많은 국가들이 Mode 3 형태의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다. 반면에 Mode 4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은 편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Mode 4를 일종의 이민정책과 연계해서 보기도 하고, 국내 실업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소 민감한 사안으로 분류된다.

Tab. 2-1. GATS Service Trade and Statistics

GATS supply mode	Definition	Data Source	Measurement
Mode 1	Cross-border Supply	BOP	ok
Mode 2	Consumption Abroad	BOP	partly ok
Mode 3	Commercial Presence	FATS	statistics mostly missing
Mode 4	Movement of Natural Persons	Remittances ?	definition not clear yet

출처: Pindyuk and Worz (2008)

GATS가 제정되면서 서비스 무역의 형태가 잘 정

비되기는 했지만, Tab.2-1에 나타나 있듯이 실제로 통계자료로서 비교적 정확한 통계 분석이 가능한 상품 무역에 비해 서비스 무역에 대한 통계는 다소간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Mode 1과 Mode 2의 일부는 통계자료로서 확보가 되지만, Mode 3나 Mode4의 경우 자료의 확보가 힘든 편이다. 특히, Mode 3의 경우 자료가 미비하고, Mode 4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Hufbauer and Stepheson (2007)에 따르면 서비스 무역에서 Mode 1은 약 35%, Mode 2는 10~15%, Mode 3는 50%, Mode 4는 1~2%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분석도 추정치에 불과하고, 정확한 자료는 구하기 힘든 편이다. 더욱이 Mode 3의 비중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형태의 자료외에는 확보가 되지 않은 점은 서비스 무역을 분석하는 데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서비스 무역의 통계로 보고되는 형태는 Mode 1과 Mode 2의 일부에 불과해서 마치 서비스 무역의 규모가 상품무역에 비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러나 2020년에는 서비스 무역 규모가 제조업 무역에 필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50년에는 Mode 3만으로도 제조업 교역 규모와 대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 다른 Mode를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서비스는 교역이 가능하기도 하다. 이러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는 여타 분야의 무역 자유화보다 더 큰 후생개선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국내생산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GDP의 60%, 고용의 70%를 넘나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을 수 있다. Robinson et al. (1999)에 따르면 서비스 무역장벽을 50%만큼 제거한다면 다른 분야의 5배 정도의 후생개선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무역은 국내규제에 의해 제약을 받고 따라서 규제의 장벽이 높은 편이다. Miroudot et al. (2010)에 따르면 과거 10년간 상품의 무역비용(trade cost)는 대략 15%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다고 보고

하기도 했다.

### 3. 서비스의 역할과 중요성

서비스의 중요성은 여러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다. 먼저 서비스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노동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이는 서비스는 촉진제(facilitator)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금융섹터에서는 시간의 매개 역할, 교육섹터에는 인적자본의 역할을 한다. 주요 인프라 서비스들은 산업간의 연결을 지지해 주기도 한다. 통신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술은 더욱 많은 서비스가 무역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디지털화,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가 서비스 무역을 가속화시키게 되었다. 또한, 서비스는 고정 무역비용을 낮추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 전자상거래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즉, Fig 3-1에서 나타나듯이 서비스는 대부분의 기타 산업 부가가치에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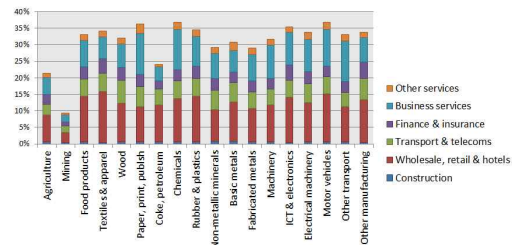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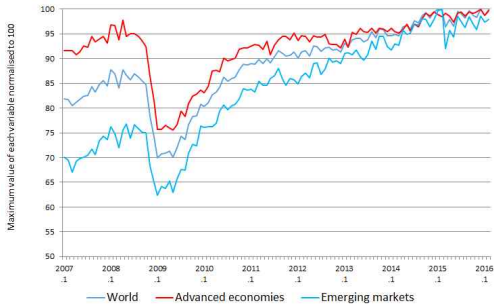
Fig. 3-1 Services & (in) industry

(average share in manufacturing value added)

출처: OECD-WTO Trade In Value Added Database, June 2015, Hoekman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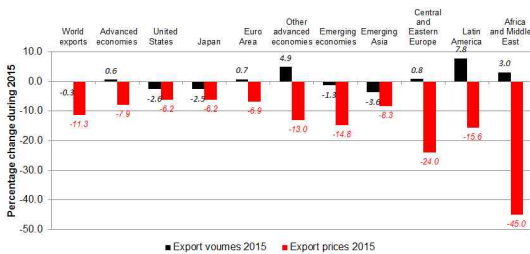
최근 무역을 정체되어 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세계 무역이 급격히 감소했던 상품무역이 회복되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와서 그 회

복제는 다시 정체에 이르렀다. 특히, 선진국 경제에서의 상품교역은 8년이 지나서야 과거 수준으로 늘어나는 정도이다(Fig 3-2 참조). 이렇듯 상품교역은 일정 부분 한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Fig 3-3, Fig 3-4, Fig 3-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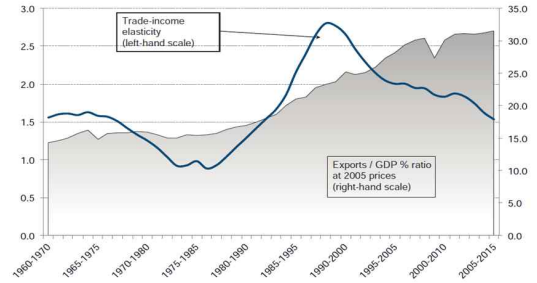
출처: CPB World Trade Monitor, February 2016.  
Hoekman (2016)

Fig. 3-2 World merchandise export volumes flat post-2014



출처: CPB World Trade Monitor, February 2016.  
Hoekman (2016)

Fig. 3-3 Trade in goods in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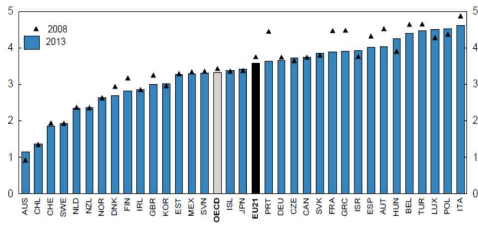


출처: Escaith and Miroudot in Hoekman 2015, Chapter 7 in Hoekman (2015) - CEPR/VoxEU e-book, Hoekman (2016)

Fig. 3-4 Income elasticity of trade

#### 4. 서비스무역 자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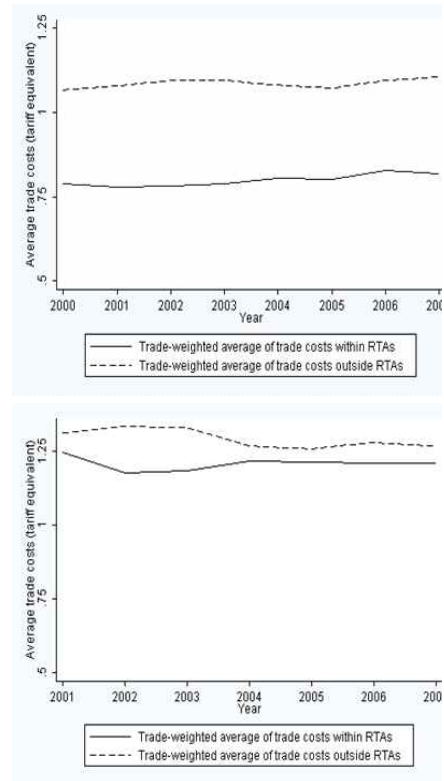
기존 무역이론들은 서비스에 대한 역할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못했다. 서비스의 성과는 생산성 증대의 결정요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역의 구조적 변화와 결정요인에 대해 새롭게 고민을 해 볼 수 있다. 생산성 증대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기업내 부거래의 서비스화를 생각할 수 있다. FDI가 서비스 무역의 이익을 위한 주요 창구가 된다. 통상협상에서 서비스의 문제가 있다. 통상협상에서 일반적으로 서비스 무역은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로서 규제된다. 규제(regulation)사향으로는 공급자의 자격요건 등, 분야별 규제 협력이 있고, 규칙(rules)은 경쟁정책, 중소기업, 원산지, 무역원활화,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등이 존재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 장벽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결국 “behind the border” 이슈이고, 그러한 서비스장벽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출처: OECD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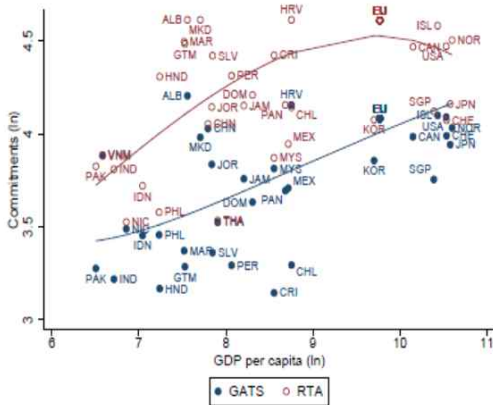
Fig. 4-1 Sticky Service Trade Barrier

OECD는 2007년부터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OECD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3개 분야에 대해서만 작업을 시작했으나, 이후 42개국까지 대상국을 넓히고, 18개 분야에 대해서 STRI를 만들었다. OECD STRI는 분야별로 5개의 범주로 나뉘고, 그 5개의 범주내에서 세부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 각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무역관련 조치들의 유무 혹은 그 자유화 혹은 규제 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출처: Miroudot, Sauvage and Shepherd, 2010. Hoekman (2016)

Fig. 4-3 Trade costs for goods and services, intra- vs. extra-PTA flows



출처: OECD (2014)

Figure 4-2 GATS vs. PTAs (Average sectoral coverage)

그러한 작업들이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에서 논의가 진행되지만 반드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Beverelli, Fiorini, Hoekman (2015)에 따르면, 서비스교역장벽이 높으면 이는 제조업 분야에서 낮은 노동 및 총요소생산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생산성 증대 효과는 법규, 부패, 규제의 질 등과 관련되어 있다.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적인 통상정책, 즉 과거 제조업 중심이 아닌 서비스업의 중심, 자본친화적인 제조업보다 고용친화적인 서비스업의 발전과 개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FTA와 WTO 성립으로 인해 상품관세율은 충분히 낮아진 상황이므로 통상에서 더 이상 제조업의 비중은 높지 않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이고 고용친화적이며 외부 변화에 덜 민감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분이 내수중심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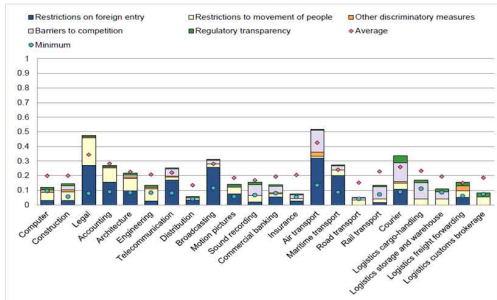


Fig. 4-4 STRI sector and policy area  
출처: Hoekman (2016)

TISA (Trade in Service Agreement)는 WTO내의 미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한 RGF(Really Good Friend) 국가들이 시작한 복수국간 서비스 무역 자유화 협정이다. 2012년말 협상 추진 기본 프레임워크 합의를 도출 한 후 협상을 지속해 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외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각국가들의 BEST FTA를 기준으로 한다는 목표하에 양허안을 제출했다. 기존 참가국 외에 중국의 참여가 논의되고 있는 등 향후 서비스 무역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TISA를 통한 논의가 WTO 내의 다자화협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Sung (2013)에서는 TISA의 타결로 한국에서 5년내에 0.35~0.36 %, 15년내에 0.63~0.64% 만큼 실질 GDP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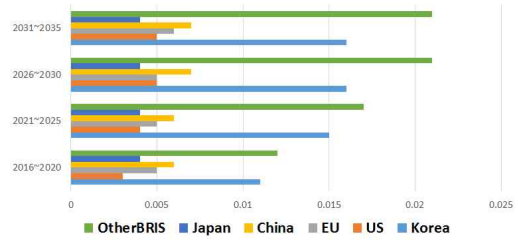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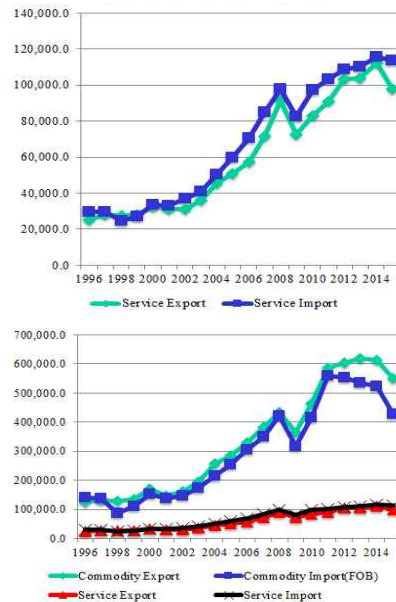


Fig. 4-5 Changes in Real GDP by Service Trade Liberalization (%)

### 5. 한국의 서비스 무역

일반적인 서비스무역 통계는 Mode 3와 Mode 4는 포함되지 않은 통계이다. 한국의 서비스 무역량은 지난 20년간 급격히 증가해 왔으나, 그 증가율은 상품무역의 증가율에 비하면 낮다. 현재 선진국형 경제로 이행 중에 있다.



출처: Sung (2016)

Fig. 5-1 Korea's Service Trade and Comparison between Commodity and Service Trade

건설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수출이 수입보다 컸다. 그러나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해 왔다. 주요 통신공급자들이 Qualcomm에 로열티를 지불해서로 짐작되고 있다.

한국의 금융서비스는 1990년대 말 이후 자유화되었다. 보험서비스는 서비스 수출이 서비스 수입보다 더 컸지만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금융서비스 무역은 2004년 이후 급증했다.

컴퓨터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수출과 서비스 수입이 2009년 이후 급증해 왔다. 사업서비스에서, 서비스 수입은 서비스 수출에 비해 적으나 그 격차는 2012년 이후 급격히 감소해 왔다. 이는 한국이 비교열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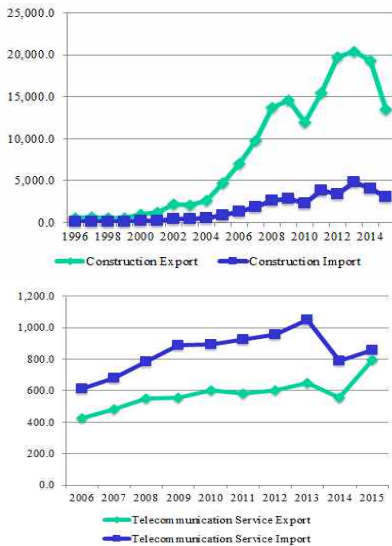


Figure 5-2 Korea's Construction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 Trade  
출처: Sung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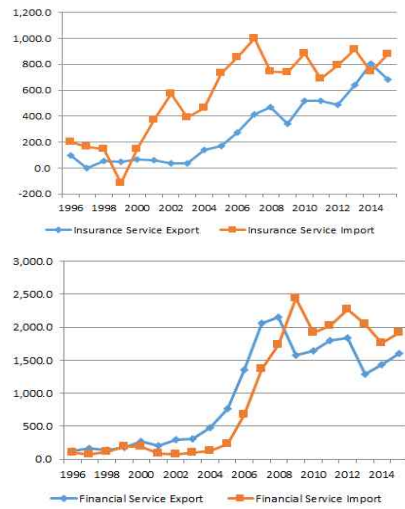


Figure 5-3 Korea's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 Trade  
출처: Sung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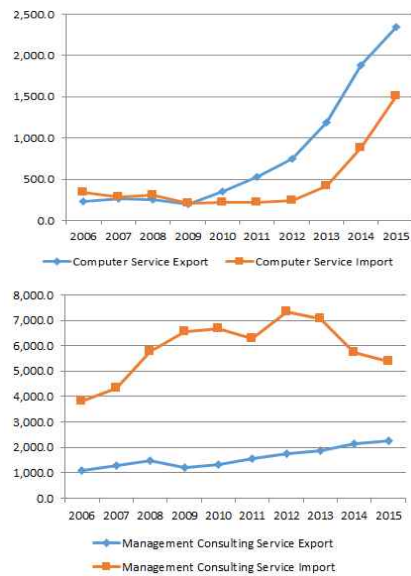


Figure 5-4 Korea's Computer and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 Trade  
출처: Sung (2016)

문화/오락서비스에서, 서비스 수출과 서비스 수입 모두 2004년 이후 급증하다가 2011년 이후로는 균형

을 유지하고 있다. 운송서비스에서, 서비스 수출은 서비스 수입보다 더 크지만, 2009년 이후 정체되어 있다.

한국은 2014년에 1,069억 달러를 수출하고, 1150억 달러를 수입했고, 최대수출은 해운, 건설, 기타사업서비스 분야이다. 한국의 STRI의 42개국 중에서 평균 이하이거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은 22개 분야 중 15에서 평균 이하의 STRI를 기록하였다. 즉 나쁨 개방도가 높은 편이었다. 7개의 나머지 분야에서 특정 규제로 인해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한국은 수평적 규제가 매우 적은 편이지만, 일시 입국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있다. (24개월 체류 제한). 한국은 회사등록을 위한 상대적으로 비싼 절차를 가지고 있다. 도로운송, 유통, 보험서비스는 가장 낮은 STRI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STRI가 높은 것은 항공운송, 법률, 택배 서비스가 포함된다. 한국 수출의 17%가 서비스 수출이고, 서비스의 고용비용인 높은데 이는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며, 경쟁축진과 서비스개발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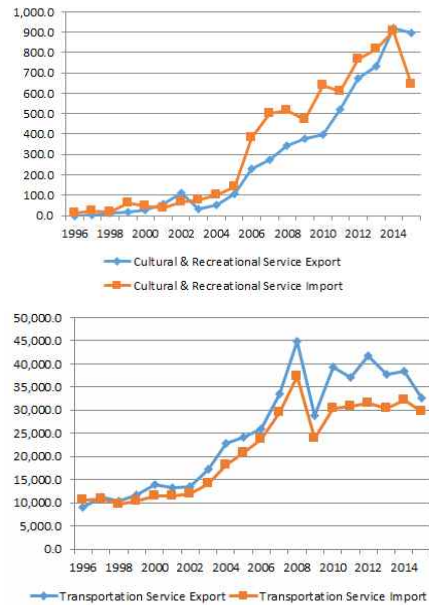


Figure 5-5 Korea's Cultural & Recreational and Transportation Service Trade  
출처: Sung (2016)

## 6. 한국의 대응전략

서비스 수출이 과연 바람직한가? 서비스 수출의 많은 형태가 해외투자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한 해외투자는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통한 내수경기위축, 고용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 분야를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교열위에 있고, 국내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서비스와 같은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바쁜 규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서비스 무역 자유화는 규제철폐인데, 규제철폐가 양질의 서비스 수입 및 국내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잠정적으로 결렬이 된 상태에 있지만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서비스 무역 패러다임을 제시할 서비스무역협정(Trade in Service Agreement: TISA)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TISA가 복수국간 협정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다자간 협정으로 마무리될 경우 경제적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협정이 다자화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협상 참여가 다자화에 대비한 한국의 이익 관철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사실상 답보 상태에 있는 WTO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통상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서의 서비스 협상이 향후 급격한 진전이 된다면 본 협정을 중심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TISA가 향후에 타결이 되더라도 한미 FTA 및 한EU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TISA가 타결되어 추가적 부담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미 상당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약속한 우리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TISA에 따른 국내적인 조치들에 대해 전향적이고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한국은 한중 FTA 후속협상을 앞두고 있다. 최근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중 FTA 후속협상에 대한 논의가 잠잠해졌지만, 한중 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중 FTA 발효 2년이내에 후속협상을 시작하고, 시작 2년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다. 한중 FTA가 2015년 12월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2017년 12월 이전에는 실제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사드 보복으로 인해 중국시장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거대시장인 중국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고민해야 하고, 또한 개방을 통한 관행개선도 필요하다.

한중 FTA 후속협상은 주로 서비스와 투자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게 된다. 중국의 사드보복이 관광, 유통과 같은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만큼 한중 FTA 후속협상을 통해서 중국의

그러한 낯고 불공정한 관행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들을 그 안에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국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발굴해 내고자 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타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큰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상업적 이익을 넘어선 보편적인 개방이익의 공유가 가능한 방향의 서비스 개방이 필요해 보인다. 서비스 개방에 있어서 지나치게 일부 서비스 공급자들의 상업적 이익만이 강조된다면, 서비스 개방의 긍정적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이러한 서비스 개방을 위한 “Korea Standard”를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아직 한국은 개도국의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한EU FTA를 통해서 선진국에 필적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달성했기 때문에 개방수준에 대한 국제적 공감을 얻기 좋은 위치에 있다.

## 7.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무역의 형태와 역할 그리고 한국의 서비스 무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은 서비스가 각 국가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과 함께 상품무역의 정체와 함께 부각되고 있다. 여전히 낮은 교역자료의 이용 가능성에도 OECD 등의 노력으로 서비스 무역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입장에서는 한국의 서비스 교역 비중이 상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고, 일부 분야는 만성적인 적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 서비스 개방을 추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개도국과 선진국을 매개하는 Korea Standard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미, 한EU FTA를 통해서 선진국에 필적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달성했고, TISA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개방수준에 대한 국제적 공감을 얻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로는 실증적 연구를 생각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서비스 무역와 개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서비스 무역의 특성상 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만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연구가 가지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하더라도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할 방법론과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향후 과제로 남겨 둔다.

## References

- [1] CPB World Trade Monitor, February 2016.
- [2] Hoekman (2015), "Chapter 7 The Global Trade Slowdown: A New Normal?" "A VoxEU.org eBook
- [3] Hoekman, B (2016),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Services Trade and Investment" , 2016 APEC CBNI Workshop.
- [4] Kim and Sung (2015),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Services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Services Trade "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김종덕 · 성한경(2015),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5] MIROUDOT, S., SAUVAGE, J., & SHEPHERD, B. (2013). Measuring the cost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World Trade Review*, 12(4), 719-735
- [6] OECD (2014), OECD Economic Surveys: European Union 2014, OECD Publishing,
- [7] OECD (2015), "OECD-WTO Trade In Value Added Database ", www.oecd.org, June 2015.
- [8] Pindyuk and Worz (2008), "Trade in Services: Note on the Measurement and Quality of Data Source, FIW Research Reports, June,
- [9] Sung, H (2013), "Economic effects of Pluralilateral Service Agreements" MOFAT Public hearing (성한경(2013),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의 경제적 효과", 외교통상부 공청회자료).
- [10] Sung, H (2016), "Service Trade in Korea and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2016 APEC CBNI Workshop.

**Hankyung Sung (hsung@uos.ac.kr)**



Hankyung Sung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School of Economics in University of Seoul. He holds a Ph.D. in Economics from the Ohio State University. Prior to joining the University of Seoul, he worked as an Assistant Professor in Kookmin University and Associate Research Fellow in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He published papers in the fields of experimental economics and international trade such *Experimental Economics*,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Asian Economic Papers*, *Journal of Market Economy*, *Kukje Kyungje Yongu*,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 and *Journal of East Asian Integration*.

# Service Trade, Changes in Export environment, and Response Strategy

Hankyong Sung\*

##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types and importance of service trade. The service trade, which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s shaped by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However, the availability of trade data is still low. The servic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value added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o lead the trade enhancement effect beyond the current stagnant commodity trade. Such effects are also confirmed by studies using the OECD Service Trade Restriction Index. Korea's service trade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commodities 's, and some items are still in a chronic deficit. In order to overcome such a situation and develop the service industry, it may be considered to pursue active service opening around major industries. It is also possible to suggest a Korea Standard that mediates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Keywords: Service Trade, Trade Liberalization, STRI, Response Strategy, Korea Standard*

---

\*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hsung@uos.ac.kr](mailto:hsung@uos.ac.kr)